



연중 제28주일(10월 12일)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 주시다

(루카 17,11-19)



나병 환자 열 사람의 치유

중세에 손으로 글을 써서 만든 서적인 필사본(筆寫本)에는 종교적 차원에서 제작된 삽화가 동반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 중 11세기 룩셈부르크 동부에 있는 도시 에히터나흐에 위치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제작한 필사본 세밀화가 매우 유명했다. 그 중 예수님의 일생을 묘사한 하인리히 3세의 복음서가 있다. 그 일부인 성화 왼쪽에 나병 환자 열 사람이 손을 들어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절박하게 간청하고 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자비를 베푸시어 치유의 은총을 주고 있다. 이들 열 사람 모두는 길을 가던 도중에 나병이 치유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이 보인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길을 가던 중, 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감사를 드리고 있다. 홀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느님을 찬양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손을 들어 구원의 축복을 내리신다.

에히터나흐의 코텍스 아우레우스 필사본 | 1035-1040년경, 게르만 국립박물관, 독일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 주님! 저희 마음을 일깨우시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 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1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가 시게 되었다. 12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열 사람이 그분께 마주 왔다. 그들은 떨쩍이 서서 13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4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15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16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18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19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나는 삶의 고충 속에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루카 17, 13 참조)

내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던 때는 언제입니까? (루카 17, 17-18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도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변화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현존 앞에 머물며 참된 감사와 믿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도 전례와 신심 활동, 그리고 일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느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물기보다는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지도 못하며, 결국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현존 앞에 어떻게 머물렀습니까?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루카 17장 19절]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나누기 이 시간은 원하는 소공동체에서만 진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우리 공동체 속 이주민 ▶ 10월 5일, 이주민들의 희년 일정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① 우리 공동체 속 이주민 구성원들을 알아보고, 소공동체 모임에 초대하기

내 삶 속에서

① 본당 미사나 행사 시 만나게 되는 이주민 구성원들에게 인사 건네기

② 먼 타국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묵주기도 5단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41번 “주의 나라 임하면”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